

RANKING

55위

Verrazzano Chianti Classico

베라차노 키안티 클라시코

이탈리아산 '베라차노 키안티 클라시코'는 뉴욕시와 인연이 깊은 와인이다. 뉴욕항을 처음 발견한 이가 바로 베라차노라는 이탈리아 장군이다.

토스카나의 주요 와인 산지인 키안티에 영지와 함께 포도원을 갖고 있던 지오반니 디 베라차노 Giovanni di Verrazzano는 신대륙 탐험에 나서 1524년 뉴욕을 발견했다. 훗날 뉴욕시엔 베라차노 장군의 모험과 도전 정신을 기린 베라차노 다리 Verrazzano Narrows Bridge가 세워졌고, 뉴욕커들은 매년 열리는 뉴욕 마라톤 대회를 이 다리에서 시작한다.

'베라차노'는 청담동에 동명의 와인 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에 외우기도 쉬운 편이다. 이 와인의 수입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인데 꽤 많은 수입 와인 리스트 중에서 유독 '베라차노'를 와인 레스토랑 이름으로 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베라차노'의 생산자인 카스텔로 디 베라차노는 키안티 클라시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원이다. 키안티 클라시코의 파시냐노 수도원에 보존되어 있는 1170년경의 필사본에 '베라차노에 위치한 포도원'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